10년째 5·18 알리는 인천 아저씨

‘희망의 5월 장학회’ 운영 계양봉사단 임정수씨

지난 1일 인천시 계양봉사단 사무실에서 장신자 사무국장, 임정수 단장, 양경희 다솜 한국어 교실 강사, 엄경은 방산복지재단 사무국장(왼쪽부터)이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5·18묘지 참배 뒤 나눔·배려 참 뜻 알아
희생자 자녀 등 30명에 30만 5180원씩
“불우이웃 후원이 오월정신 계승하는 것”

“5·18 정신이요? 나눔과 배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계양봉사단 임정수(59) 단장은 5·18 정신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 대표적인 외지인이다.

3년 전 ‘희망의 5월 장학회’를 꾸린 그는 5·18 희생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첫 해 3명에서 시작해 지난해 7명에게 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핸 30주년을 기념해 30명의 5·18 희생자 자녀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정해 30만5180원씩을 후원할 계획이다. 애초 계획은 5·18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80만5180원을 30명에게 줄 계획이었으나 생각만큼 후원자가 없어 30만5180원으로 액수를 줄였다.

임 단장은 ‘희망의 5월 장학회’를 만든 이유에 대해 “국민 모두가 5·18을 잊고 싶은 기억이 아닌,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희망의 5월 장학회’를 통해 5·18 전국화와 더불어 세계화에 기여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살며 인터넷 등을 통해 5·18을 알리고 있는 5·18유공자 이상원(49)씨와 연계해 5·18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미국으로 유학보내는 프로그램도 구상중이다.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임 단장은 10년 전 한 지인의 추천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에 빠져들었다.

그는 “묘비명마다 원망이나 미움이 아닌, 고귀한 죽음과 이 땅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묻어나 있었다”며 “그것이야말로 1980년 5·18 당시 광주시민들이 나눔과 배려, 자치, 사람들간의 대동단결을 이뤄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임 단장이 벌이고 있는 일은 다양하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솜 한국어 교실’, 환경보호를 위해 ‘서부천 살리기 운동본부’, 지역 결손가정이나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신나는 교실’, 정신 지체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 훈련을 돕기 위한 ‘해피 투게더’, ‘민들레 장애인 야학’ 등이 그것이다. 또 희귀병 환자나 장애인들의 공동체 시설을 만드는 ‘더불어 사는 집’과 ‘행복이 가득한 집’, 어린이들의 그룹 홈 형식인 ‘하늘 정원’ 등을 후원하거나 운영하고 있다.

그는 “이 모든 활동은 회원들의 기부금과 후원금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언제나 부족하다”며 “그러나 누군가 해야할 일이며, 이것이야말로 5·18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자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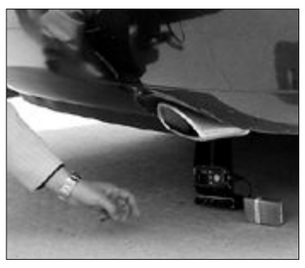
임 단장에게는 꿈이 하나 있다. 봉사자와 사회적 활동가들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어울려 사는, 평생교육시스템을 갖춘 ‘함께 사는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는 “5·18 정신의 생활화가 마을의 기본 방향이 될 것”이라며 “5·18을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5·18로 인해 시대의 희망을 보았다”고 강조했다.

/인천=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곡성군수 후보 차에 위치추적 장치

뒷 범퍼 밑부분서 발견…지방선거 관련 의혹



민주당 곡성군수 예비후보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가 부착〈사진〉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곡성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25분 조형래 민주당 곡성군수 예비후보 측에서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의 밑부분에서 위치추적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발견 당시 위치추적기는 차량에 부착시키기 위해 사용된 양면테이프의 한 쪽이 떨어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조 후보는 지난달 3일부터 전주의 모 렌트카 회사에서 그랜저 차량을 렌트해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제의 위치추적기는 차량 도난을 막기 위해 렌트카 회사에서 부착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누군가 조 후보 측 승용차에 불법으로 위치추적기를 부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위치추적기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관련 제품 판매처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 후보 측은 “후보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몰래 부착된 것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광주·전남 기업들 법정관리 잇따라

광주지법 “바쁘다 바빠”

민사10부 재판부 58개 회사 관리

올 들어 광주·전남지역 중견기업들이 잇따라 법인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를 전담하는 광주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선재성)로 지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주요 기업들의 회생절차 신청이 법적 타당성을 갖췄는지 여부와 함께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하면서 눈코 뜰새 없이 사건 처리에 매달리고 있다.

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현재 민사10부가 관리중인 회사는 모두 58곳으로, 자산 규모는 1조4천억원에 달한다. 광주·전남에서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은 2005년 1개, 2007년 4개, 2008년 15개 등으로 최근 2년 새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선 남양건설과 금광기업 등 지역 내 대표 기업들까지 줄줄이 ‘법정관리’ 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재판부의 업무하중은 한층 늘어났다.

현재 광주지법 민사10부는 재판장인 선 부장판사와 최종원·이재욱·강효인 판사 등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판사 3명은 각각 20여개 회사의 계약 및 지출 내역을 검토하고 회사 관계자로부터 정기 보고를 받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시장 경선 불법 여론조사 논란

호남일보 사주 체포영장

검찰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여론조사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언론사 관계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2일 광주지역 호남일보의 실질 사주인 김모(47)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ARS 여론조사의 핵심 관련자인 김씨를 체포하는 대로 모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위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문제의 여론조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모 후보 측 인사로 알려진 임모(44)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양심선언을 통해 “이용섭 의원 측이 유리한 증언의 대가로 11억원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 의원 측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녹취록이 있다”고 반박한 이후 검찰의 출두요구에 불응한 채 행방을 감췄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무인텔 2층 감금 탈출 중상 상대남성 강간치상죄 성립”

광주지법 판결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에게 성폭행의 위협을 느끼게 해 다치게 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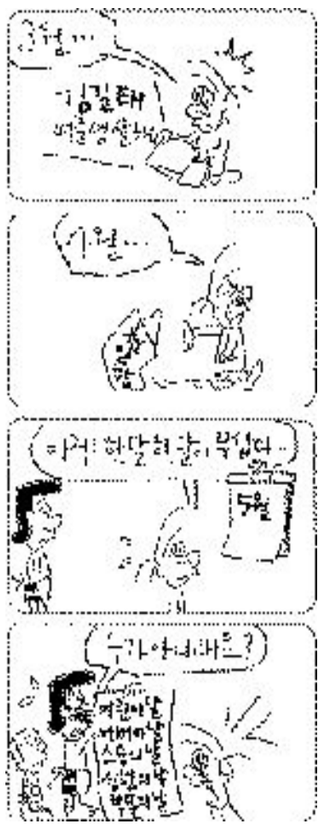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구조 요청이 어려운 속칭 ‘무인텔’에 감금된 상태에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다 다친 것은 김씨의 성폭행 위협을 피하기 위한 것이어서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7일 새벽 함께 술을 마시던 A(여·27)씨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차에 태워 화순군의 한 무인텔로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A씨가 탈출하려다 크게 다치자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객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등 성폭행을 시도한 김씨가 잠시 모텔 1층의 주차장에 가 있는 사이 2층 객실 창문을 통해 4.6m 아래 바닥으로 뛰어내려 전치 16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운찬 〈8101〉 김종두



링스헬기 홍승우 대위 시신 인양

지난달 10일 진도 해상에서 추락한 링스헬기 실종자 홍승우(25) 대위의 시신이 추가 발견됐다.

2일 해군 3함대 사령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3분 헬기 동체가 발견된 지점(진도군 독거도 동남쪽 약 10㎞) 인근 해저 37m 지점에서 조종석과 함께 안전벨트를 매고 있던 홍 대위의 시신을 발견 인양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경찰에 신고? 슈퍼 여주인 보복폭행

쌍나팔

○…수일 전 폭행 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슈퍼마켓 여주인을 찾아가 보복 폭행한 50대 남성이 철창 신세.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강모(52·동구 계림동)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2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B슈퍼마켓에서 주인 이모(여·81)씨의 얼굴을 자신의 점퍼로 덮어씌운 뒤, 주먹과 발로 수 차례 때렸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지난달 19일 B슈퍼마켓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사던 중 말다툼 끝에 이씨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가 이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는데, 경찰에서 “멱살잡이만 했는데, 이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났다”고 진술.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